



주은혜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마친 후.

받은 은혜 나누는 주은혜교회 되길

1주년 감사예배 드리고 나눔과 선교 다짐

주은혜교회가 지난 1일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담임 최호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좇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우리에게 주은혜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1년, 10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전했다.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는 원바디 바이블 타임스 미주대표인 남궁태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원바디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달에 100달러를 후원해 전세계 고아 50명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일이다. 향후 한 고아원을 영적으로 입양해 섬기면서 단기선교도 떠나는 것이 목표다. 또 컴패션 인터네셔널과 함께 빈곤국

어린이, 특히 고아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려 한다.

최 목사는 “주은혜교회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로 자라가길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회는 4469 Chavy Chase Dr.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에 있으며 주일 오전 10시에 영어 예배, 오전 11시에 한국어 예배를 드린다. 전화는 626-404-4493다.

김준형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다민족기도회

오는 10월 2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Back to the Bible-회개, 성결, 선교”라는 주제 아래 열린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대회고문으로 김영길, 박희민, 송

정명, 이정근, 한기형 목사 등 교계 원로들과 김준근 장로가 섬기고 있으며 대표대회장은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은 강순영 목사다. 특히 올해는 LA, OC, LA동부, 인랜드, 중부, 샌퍼난도밸리, 사우스베이, 샌디에고 등 각 지역 교회 연합체들의 대표들이 지역 준비위원장이 되어 섬기고 있다.

주최측은 “성경 읽기 운동과 함께 회개와 성경적 가치관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이 다시 한 번 대부흥을 체험하고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써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손을 맞잡고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문의) 사무총장 김경일 목사 213-507-3875



이번 회기를 섬길 임원들.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이상래 신임회장, 여섯 번째가 정영민 직전 회장

협의회에서 지방회로 명칭 변경

SBC 남가주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 열려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협의회가 제37회 정기총회를 10월 9일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했다.

총회 개최예배에서는 반재근 목사의 사회로 이상래 목사가 기도하고 정영민 목사가 “예수님의 계산법(눅15: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36차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따라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협의회’의 공식 명칭을 ‘남침례회 남가주 한인교회 지방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의회란 명칭 대신 지방회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이 협의회가 사실상 지방회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교단 내에서 협의회보다 지방회라는 명칭이 갖는 권위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명칭

변경안은 반대 없이 통과됐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이상래 목사(미라클랜드교회)가 회장에 단독 임후보해 회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당선됐다. 또 부회장 최성광 목사(리버사이드침례교회)도 단독 임후보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상래 목사와 함께 한 회기 동안 섬길 임원들로는 총무에 민승배 목사(페이스채플조은교회), 회계에 박경호 목사(얼바인침례교회), 서기에 반재근 목사(씨미밸리 한인교회), 감사에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송재호 목사(할렐루야한인교회)가 임명됐다.

이상래 신임회장은 “잘 모이는 지방회, 개교회를 잘 섬기는 지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목사뿐 아니라 사모도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19주년 맞이한 창대교회 헌당예배

오는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창대장로교회(이준준 목사)가 헌당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이 지역의 영적 구원 외에도 노숙자

사역 등 다양한 섬김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다. 문의) 951-966-9191 주소)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Oxford Ave ■ Tune-Ups ■ 10K Service
 Pico Blvd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한기홍 목사

신유 축복강화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행4:30-

일시: 2017. 10. 19(목) ~ 22(주일)
 19(목) 7:30PM
 20(금) 5:30AM/7:30PM
 21(토) 6:00AM/7:30PM
 22(주일)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저녁 6: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장항희 목사(일산등둔한 교회 담임)

장항희 목사
 총회부흥운동단 대표(예장총합)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CHTV CH 18.7	오후 12:00(주 일)	
CGNTV LA 지역	오후 02:30(월요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CHTV CH 18.7	오전 04:30(화요일)	
크리스천 매빌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SCA FM	오전 00:00(토요일)	
라디오 서울 1650	오전 09:00(토요일)	
	오전 00:00(토요일)	

주일예배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일정침회 8:00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나눔장로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해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탈북민 북한 증언의 날”

남가주 지역 탈북민들을 섬기는 나눔장로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해 지난 8일 오후 4시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탈북민 사역을 하던 김영구 목사가 탈북민들을 섬기고자 개척했으며, 이후 탈북민뿐 아니라 탈북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남가주

한인들도 출석하며 남북의 하나됨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은 남가주한인목사회 샘신수석부회장, 박세현 부회장, 심진구 부회장, 여호수아 지 부회장, 송금관 총무 등 목사회 임원들이 대거 방문해 축하하고 식순을 맡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탈북민들의 증언 시간에 깊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 교회 최광혁 집사는 “북한이 농민들을 어떻게 수탈하고 굶어죽게 했는지 증언하고자 나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주메이 집사는 자신이 탈북해 중국인 남성에 팔려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빼앗긴 일, 특히 자신이 복송되어서 겪은 끔찍한 사연을 읊면서 증언했다.

이 두 증언자 모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북한의 기아와 인권 실태를 고발하며 증언을 시작했지만 그 증언은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요청으로 끝났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매달 1회 북한 증언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준형 기자



월드미션대 학생들이 기독교 상담사 1급 자격증 면접을 통과했다.

기독교 상담사 1급 면접 실시

월드미션 졸업 예정자 5명 면접 합격

지난 10월 3일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가 주관하는 기독교 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면접이 실시돼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상담학 석사 과정 졸업 예정자 5명이 합격했다.

이 면접과 더불어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회장인 전요섭 교수(사진 가운데, 성결대)가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기독교상담-시각전환과 재구성 상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하기도 했다.

기독한의협 10월 예배 및 학술 세미나 열려



10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사진 촬영

매월 둘째 주일에 모임을 여는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예수마음교회에서 정기 예배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윤희진 원장이 근육치료를 위해 강연회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 앞서 먼저 장승종 목사(마가교회 부목사)가 설교하는 가

운데 예배 드렸다. 김마리아 선교사의 베트남 선교 보고, 박민수 선교사의 우간다 장애인 선교 보고 시간도 있었다.

이 협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6주간에 걸쳐 ‘신 8체 질점법 학술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현 한의사 및 한의대 재학생이다.

또 이 협회는 한인타운 내의 저소득층을 위해 매주 토요일 무료 한방 진료를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약손한의원(3170 W. Olympic Bl.)에서, 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예안선교교회(2551 Beverly Bl.)에서 진료가 이뤄진다.

예약은 전화 213-500-6393 혹은 213-703-8541로 하면 된다.



에버스톤교회 성도들

에버스톤교회 새 보금자리 마련 첫 예배에서 조희서 목사 설교

그동안 예배 장소를 찾지 못했던 청년 중심의 한인교회인 얼바인 에버스톤교회(담임 김관호 목사)가 새 예배당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

새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는 지난 주일인 8일 드렸다. 특별히 서울씨티교회 조희서 목사가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그는 “말이 중요합니다(창17:1-7)”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30년 전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소명을 받았으며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예배 장소가 없어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도들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했다.

그는 에버스톤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얼바인 에버스톤교회는 17702 Cowan Irvine CA92620에 위치해 있으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jangseok.org, 전화번호는 714-732-2877이다.

담임 김관호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중이다.

그는 서울 장석교회에서 부목사로 9년 간 시무했으며 현재 에버스톤교회, 한국명 미주장석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엘비 권 기자

“탈북자 구출해서 성경으로 변화”



김성은 목사와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최근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 초청 집회가 있었다.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하고 있는 김

목사는 30대 중반 중국족 두만강에 갔다가 그곳에서 북한의 고아들을 처음 만나면서 지금까지 5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하고 지원했다. 또

한, 북한 내부 실상과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에 힘쓰고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이다. 탈북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례는 이루셀 수 없다. 성경을 거부하는 탈북자들에게 돈을 대어주며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게 하지만 결국 억지로 읽던 성경이 그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김 목사는 탈북자 아내와 결혼해 현재 3명의 탈북자 소녀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는 “탈북자를 구출하다 큰 부상을 입어 몸의 일부를 철심으로 고정하고 있지만 끝까지 탈북자 사역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엘비 권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조희서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예일한인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일시 / 주제
- 10월 12일(목) 오후 7:00 **말이 중요합니다**
- 10월 13일(금) 오후 7:00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 10월 14일(토) 오후 7:00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 10월 15일(주일) 오전 11:00 **교회의 길**
- 장소
- 예일한인교회 박은종 담임목사 6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 문의
- T: (213) 975-9191**



조희서 목사
서울씨티교회 담임목사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

개교 2년 만에 명문 국제 기숙학교로 부상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

2015년 8월 개교 후 급속 성장

지난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챔버스버그(Chambersburg) 시에 위치한 참전용사 자녀학교인 스코틀랜드(Scotland) 캠퍼스가 문을 담은 지 6년 만에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펜실베니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교하였다. 당시 미주성시 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성우)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대표: 이우호 회장) 등의 후원과 미국장학회 이사인 김상범(David S. Kim) 박사, 장용진 회장(KISS 그룹), 한정길 목사(전 미수도지역 목사회장) 등 한인 대표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펜실베니아 중부지역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하여 학교의 성공을 지원하였다.

저개발국가 전역 장학생 선발 육성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는 저개발국가 및 비복음지역 국가들의 현직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미래에 자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장학제도를 F.A.D.(Faith Aim Dream)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중국, 베트남, 인도, 콜롬비아, 브라질, 루마니아 등에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

이다. 이들은 현지 선교사들의 추천에 따라 항공료,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모든 것이 지원되는 장학생부터 학비와 기숙사비가 면제되는 장학생, 학비와 기숙사비가 일부 면제되는 장학생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하여 선발되었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일반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도전과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통하여 온전한 평신도 선교사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에서는 현재 버지니아주에 등록된 GVCS Foundation 비영리 장학재단을 통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교회와 기독교 단체, 기업, 개인 등으로 부터 장학기금을 기다리고 있다.

150여 명 학생들 학업 정진하는 국제학교로 부상

지난 10월 1일 GVCS PA(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 체플에서 주일예배 직후 GVCS PA와 Scotland Campus Inc(총장: David Newell)가 특별 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Scotland Campus Inc가 운영 중인 스포츠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고등학교 재학생 6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GVCS PA에 편입학하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학생들은 미 동부 지역의 각 도시 및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고등학생 스포츠 꿈나무들로서 농구 및 야구로 미 프로선수 및 대학선수 등 스포츠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이날 GVCS PA 재학생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고 결연식에 참석하여 다함께 편입생 선서를 하였으며, GVCS의 남진석 설립이사장과 Scotland Campus Inc의 Dr. David Newell 총장의 서명이 완료되었을 때 모두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재학생 50여 명과 이날 편입생 60여 명, 그리고 한국 GVCS로부터 온 교환학생 50여 명 등 15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부상하였으며 이날 챔버스버그시 교육구(Chambersburg School District)의 패더책(Padachak) 교육감 내외를 비롯한 교직원 가족들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매우 높아

2015년에 개교하자마자 9학년으로 입학한 텍사스 주 출신의 교포 학생 Eunice Park(박은지) 학생은 자신의 학교 선택에 대하여 "GVCS가 미국에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았다. 이 학교를 만난 것도, 지금 이



김재홍 목사, 백동홍 목사, 김요한나 전도사, 이명수 목사, 오세원 목사가 제 6회 십자가의 길 행사를 소개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 묵상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주십자가영성원 주최로 "십자가의 길" 행사가 열린다. 팜데일에 있는 비전하우스에서 실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매고 산을 오르는 행사는 매년 2차례, 고난주간 전 주와 10월 셋째주에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제6회째다.

회장 백동홍 목사는 "십자가의 길 행사는 예배와 간증, 십자가 체험 등 모든 순서가 오직 십자가를 향하도록 구성돼 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행사를 마치고 나면 십자가에 담긴 큰 은혜에 빠져들게 된다"고 전했다. 오세원 목사도 "목회가 힘들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고통을 겪어 봤느냐'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명이 회복되는 체험을 했다"고 전했다. 원장 이명수 목사는 "십자가 지는 체험을 통해 고난의 묵회 길목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리길 원한다"고 간증했다.

김재홍 목사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행사 후에도 참가자들이 자주 만나 은혜를 나누고, 다음 행사 때 앞장서서 섬기는 등 묵회와 사역에 임팩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요한나 전도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십자가로 인해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십자가로 인해 안식을 얻는 체험을 했다"고 간증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번에 십자가를 체험하고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이 다시 한번 모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참여한다. 또 이번 행사에 함께 할 목회자, 선교사 및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 비용은 없다.

이들은 이 행사를 통해 사명 회복과 가정 회복, 치료의 기적과 성령의 은혜가 있길 기도하고 있다. 문의) 213-675-8291

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GVCS는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며 미래를 여는 문이다." 라고 말하며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깊은 자신감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F.A.D.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곳에 입학한 카자흐스탄에서 선발되어온 약졸 학생은 "기숙사에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최고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미래의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중국대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멘디 학생은 "GVCS는 학생

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며 GVCS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융합을 느낄 수 있다. 글로벌 비전을 이용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더 높은 플랫폼에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장차 중국의 외교부관이 되어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한국으로부터 온 유학생, 미국 현지 교포자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 F.A.D. 장학생, 그리고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학생 등 출신과 나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입학 문의) 972-363-7384
kyungsoo@gemgem.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까.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창립 19주년 창대장로교회 새 성전 헌당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장로교회가 새 성전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창대장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창립 19주년을 맞아 새 성전 헌당예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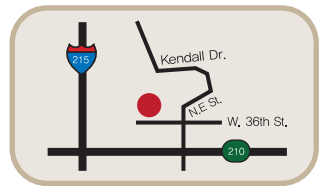
초청 강사
김승곤 목사
(나성서교회 원로목사)



이준준 담임목사

- 일시 : 10월 22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창대장로교회
- 문의 : (951)966-9191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장로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주소 :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7>

(소아시아)

터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필자는 2007년도부터 터키와 쿠르드 및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를 하고 있다.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단기선교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안수하며 열심히 사역했다. 물론 많은 동역자들, 선교사들, 현지 교회 목사들의 연합과 협력으로 터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가고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그렇게 10년을 지내 오면서 터키 안에서 수많은 큰 일들이 일어났다. 2007년도 말라티아 순교 사건, 2016년도 7월에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하루도 안되어 실패하였고 터키 당국은 비상계엄을 발효하여 지금까지 연장 상태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선교사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어수선한 정국의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복음증거는 역사적으로 늘 어렵고 위험할 때 더욱 확장된 것을 잘 안다.

요사이 미국과 터키의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주에는 터키가 미국 시민권자의 자국 입국에 비자 불가를 결정하여 현재는 잠시 미국에서 터키로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다.

당장 10월 23일부터 터키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연합팀들이 세 민족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터키를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그때 안에는 이 조치들이 다 풀리리라 믿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터키 주재 미국대사관의 터키인 직원을 터키 경찰이 연행해 간 것이었다. 미국대사관은 미국에 속한 곳인데 미국대사관 직원을 함부로 연행해 가느냐 하며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터키인들의 미

국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곧바로 터키 정부는 똑같이 미국인들의 비자를 불허하겠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 하나, 터키의 심각한 상황은 터키 동남부 지역엔 디야르바크르 도시를 중심으로 약 1500만 명 이상의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다. 쿠르드 민족은 약 4천만 명이나 되는데 터키의 국경지역인 이라크의 북서부 지역과 주변 국들로 나뉘어져 자체 나라가 없는 한 많은 민족이다.

필자는 쿠르드 민족을 품고 지난 10년간 기도하며 사역했다. 지난 9월 25일에 이라크 안에 있던 쿠르드 공동체에서 '쿠르디스탄' 국가 독립을 위한 자체 투표를 하여 90퍼센트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독립을 선포했다.

물론 이라크 정부가 찬성할 리 없고 지금 그들과 대치 중이다. 이런 분위기로 터키의 쿠르드 민족이 같이 봉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르드는 IS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4천만 쿠르드인이 무력으로 일어나면 견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지에 가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 그리고 현지 다민족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곳을 위한 후방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연예인이 되지 말라!”

담임목사가 워십리더에게 바라는 13가지

교회에서 좋은 워십리더(예배인도자) 한 명의 가치는 웬만한 목회자 못지 않다. 청소년·청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교회의 담임목사가 워십리더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더햄에 있는 서밋처치(Summit Church)의 J. D. 그리어(Greear) 목사가 그의 웹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그 주요 내용을 아래 요약했다.



1.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교인들은 예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한다. 사실 성경은 예배의 자세를 명령하고 있다. 특히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대한 자세를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워십리더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 칭찬받는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교인들이 그들의 몸과 목소리를 그들이 경배하는 이의 위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2. 때로 몸짓이 예배의 뜨거움을 불러 일으킨다.

인간은 지성과 감정 및 신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존재로 창조됐다. 실제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중 70~95%가 비언어적인 것으로 이뤄져 있다는 통계도 있다. 때로 말보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거나 서서 노래하고 외치며 손을 들어야한다고 명한 이유이다. 예배에서 종종 우리의 마음이 자세를 규정하지만,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기도 한다.

3.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목회자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워십리더인 당신은 단순히 교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그 예배의 순간만큼은 당신 또한 목회자이며, 그것이 바로 교인들이 당신에게서 바라는 점이기도 하다.

4. 워십리더로서 예배를 어떻게 인도 하길 원하는지, 담임목사와 대화하라.

내가 왜 예배 중 이 찬양을 불러야 하고 왜 이 찬양은 빼면 좋겠는지를 담임목사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예배 또한 그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5. 회중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워십리더가 일종의 연예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말이 지나칠 정도로 신학적이어서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배에 있어 예술적 측면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워십리더는 음악과 노래를 다루는 자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며 회중들이 설교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화를 삽입하듯, 워십리더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밝고 경쾌한 찬양을 선택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적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에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6. 교인들을 당황하게 하지 말라.

예배를 인도하다가 가끔 자신을 자랑하거나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회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워십리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회중들은 당황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리 해야 할 말을 적어보는 것이 좋다. 일종의 대본인데, 앞으로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곡의 가사에서 따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순간마다 직감과 유연성을 발휘하라.

설교도 그렇지만 예배인도도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그 순간의 예배 분위기와는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 때 워십리더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직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8. 설교를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설교가 끝나고 단에 오른 워십리더는 거의 매번 그 설교에 몇 마디를 더 보태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교자, 즉 담임목사의 영역이다. 이것이 워십

리더는 그 어떤 말도 해선 안 된다. 이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짧은 설교가 더 큰 위력을 발하는 때도 있다. 다만 목사의 설교 후 바로 그것을 재언급하는 것이 예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9. 목회자가 설교 할 시간을 확보해 주라.

개신교회에서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다. 워십리더가 이를 간과한 채 지나치게 찬양하는 시간을 늘리면 곤란하다.

10. 선곡에 있어 회중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라.

워십리더는 회중들이 예배에 보다 잘 집중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하다. 따라서 동시대의 찬양과 찬송가를 조화시킨 가운데 선곡할 필요가 있다.

11. 음악에 있어 너무 앞서나가지 말라.

워십리더는 회중을 예배로 인도하는 자이지 예술가를 인도하는 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회중들이 함께 부르고 따라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12. 자신의 장점에 주목하라.

우리는 흔히 단점을 지적하는 것엔 후하고 장점을 칭찬하는 데 있어 선 인색하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반대로 뒤집을 필요가 있다. 단점보다 장점에 주목하라. 특히 다른 이와 비교해서 자신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13.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워십리더는 물론 회중들로 하여금 예배의 은혜를 느끼도록 인도하는 자이지만, 그 역시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찌 다른 이들을 예배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제6회 미주지역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체험케 하소서

대상: 목사, 선교사, 사모, 전도사
장소: 비전 하우스(vision House)
32949 Oracle Hills Rd Palmdale CA 93550
일시: 2017년 10월 15일(주일) 오후 6:00 ~ 16일(월) 오후 11:00
*제7회는 2018년 3월 25일(주일)~26일(월)



초대의 말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심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첫 사랑과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오십시오,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남모르는 주의 은혜와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 십자가 영성원 회장 : 백동흠 목사 연락처:(213) 675-8291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5-5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창세 이후로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쇼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각본을 따라서 제멋대로 쇼하는 것이 세상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쇼를 잘했을 때는 박수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쇼를 잘못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원망과 심지어 행패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원맨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人)을 한 문으로 보면 상형문자로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1:26 이하에서 보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령이 되었다고 창세기 2:7에 되풀이 해서 밝히셨고 창1:36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천지만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권리가 위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1:26)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다스림으로 위임되어졌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얻어서 먹고 살자고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소유권을 다시 얻기 위하여 종살이를 하게 된 오늘의 현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애써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권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좇습니다.

요한복음 1:38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와 보라.”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 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확실하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튿날 날이 새기 바쁘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주시라 했던 그분을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내 형님이요 시몬이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네 이름을 이제 바꾸어 게바라 하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영어로 Peter라 해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십니다. 이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동생 안드레가 전도하여 와서 소개도 시켜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알아보셨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즉 너의 정통한 신앙고백을 반석으로 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가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 당하여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남은 평생은 이미 예수님의 각본에 따라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그대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는 내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머니 뱃 속에 생겼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설계하고 추진도 하고 노력도 해 보았지만 거기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도,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생기게 하심으로 생겼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짜시는 것입니다. 그걸 일찍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가서 맞추고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성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갈릴리 동북해안에 있는 작은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즉 예언이 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의 예수더라고 소개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 나다나엘이 듣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전도 말천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가장 마지막 전도 방법은 “한번 와 보라”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시니 나다나엘이 당황해서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데

리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성(兩性)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성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이요 나다나엘이 6개월 전에 날이 더워서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빨리 독립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사실을 알고 하신 말씀은 영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면서 사람이십니다.

3.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

로마 제국주의 압제 하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인권을 유린 당하고 노동력은 착취 당하는 생활 속에서 참으로 살 맛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며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에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몰려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죄 값을 회개하라고 강하게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서둘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절망은 소망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죽음은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살리기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출발 하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미주후원회 골프대회



- **일시** : 10월 14일(토) 오전 12:30 Shot Gun, 오전 11:30 Head Count
- **장소** : Royal Vista GC (20055 Colima Rd, Walnut, CA 91789)
- **Tel** : (909) 595-7441
- **참가비** : \$100 (점심, 저녁, 기념품, 상품 포함)
- **만찬 및 시상장소**: Royal Vista GC 연회장
- **참가신청** : (714)229-5868 goldenbellent@yahoo.com
(626) 786-4302 sc.yonseigolf@gmail.com

- 골프대회장 : 박준환 (South Baylo대학교 이사장)
- 준비위원장 : 김정환, 이준성(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골프회장)
- 총무 : 이춘근(오렌지카운티 미주동포후원회 위원)
- 진행 : 김낙영, 백우중, 김인근, 장인석 경기위원장: 김기수
- 주최 :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대표 이병만)
- 주관 :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오렌지카운티 (대표 임덕순)
-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 이호우)
-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방하섭)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북미주 성도들의



통곡 기도 선언문

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문안드리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곡기도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첫째,

지금은 북미주 및 해외의 모든 크리스천 동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기도 할 때입니다.
벼랑 끝 위기에 서 있는 한국 민족을 구하는 일은 정치, 경제, 군사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렘33:3).

둘째,

지금은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호6:1).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가난은 이겨냈으나
비로소 누리게 된 풍요는 이겨내지 못하고 죄와 교만에 빠졌습니다.
풍요가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성을 무장해제 하였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엘2:12).

셋째,

지금 이 위기가 오하려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복음통일의 계기가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투는 물땀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니 우리를 발하여 적군을 멸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양의 3대 우상정권을 멸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쟁과 피흘림 없이
저 악한 북한의 독재를 멸하시며 통일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왕하6:18).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넷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민족과 후손과 교회의 미래가 걸린 이 위기에 성도들 말고
누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리겠습니까?!
지금 잠잠하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들의 존재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에4:14)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1. 전쟁의 비극없이 북핵이 소멸되고 평양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2.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하성도들과 동족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3.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남북한의 복음통일을 돕게 하소서
4.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소서
5. 한국과 해외성도들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해외 모든 성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100일간 작정하고 통곡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번 모국을 향해 혼자,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독교 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무릎에 달렸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안내>

100일 동안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기도제목을 다음의 웹사이트 주소에 올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와 화면에 크게 뜨는 100일간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웹사이트 주소 <http://kccnk.org>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하소서!! (대하7:14)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북미주 100일 통곡기도 일자:
2017년 10월 15일 - 2018년 1월 22일**

그날까지 선교연합 USA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김영길 목사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신학 세미나 및 루터교회 설명회

루터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뜻 심도 깊게 논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신학 세미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신학 세미나 및 루터교회 설명회’가 2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커밍 소제 리빙페이스루터교회(담임 김창수 목사)에서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물론 미국인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은 물론 사회 각 분야, 다양한 관점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저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 루터교 입장과 장로교 입장에서 바라본 ‘루터의 신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박민찬 목사(어드벤처루터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신앙 중심적이며 신앙 순수성으로의 회복’을 주제로 저명한 루터 신학자인 문상의 박사(전, 컨콜디아대학교 부총장)와 장로교 신학자인 이호우 박사(전,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부총장, 교회미래연구소 대표)의 주제 강사가 오전에 펼쳐졌다. 오후에는 문상의 박사의 추가 강의와 이호우 박사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상의 박사는 1517년 전후, 마르틴 루터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 루터의 신학적 입장, 면죄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 95개 조항 공포, 종교재판 과정 등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소개함으로 당시 종교개혁의 시대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사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문에 부흥과 더불어 인문주의 사상이 발전하는 문화적 결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호우 박사는 “‘성경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루터의 주장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성경 해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고, 교황의 권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 하며, 시편강해를 통해 성경해석의 눈이 열려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천주교의 네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문자적 예언적 해석방법을 택했지만,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이런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것을 보게 된다”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 시대에 맞게 사용하신 부분들을 짚어냈다.

윤수영 기자



차인홍 교수가 독주회에서 간증하고 있다.

소아마비 딛고 ‘차마에’ 된 차인홍 교수

“누군가의 도움 받은 나, 이젠 그 누군가가 될 때”

‘노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차마(스트) 차인홍 교수 초청 바이올린 독주회가 지난 1일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등의 저자인 차인홍 교수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재활원에서 생활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적처럼 바이올린을 접했다. 가난과 장애, 초등학교 졸업장이 그를 둘러싼 환경의 전부였지만, 누구보다 놀라운 만남의 기적과 경이로운 삶의 비밀들을 경험하며 신시대 태대, 뉴욕시립대를 거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극적으로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 바이올린 교수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 후학을 양성하는 일과 전 세계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일, 그의 생애를 통해 써내려왔던 놀라운 사람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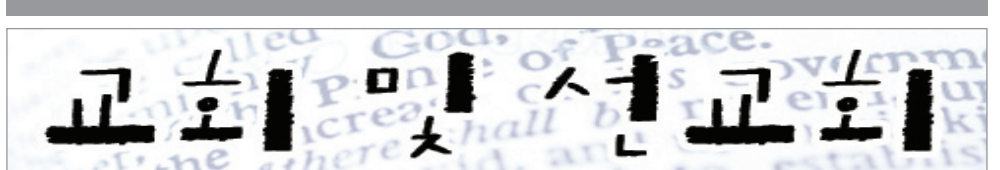
이날 연주회는 ‘메디치 그룹 프로젝트’(가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연주회를 주최한 갈보리장로교회 최진복 목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음악 청소년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꿈을 접어야 했다.

이를 돕고자 이번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차 교수는 제일연합장로교회(담임 목사 에디 브라드포드) 오르가니스트 김수진 교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모짜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7번 다장조’, 베토벤의 ‘로망스 제2번 바장조’,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의 명상곡’, 클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풍세의 ‘작은 별’ 등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들을 연주해 때마다 청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차 교수는 “어느 한 분의 도움으로 음악 배우게 됐다. 누군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처럼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 도움을 줬다”며 “아무것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살던 내가 미국으로 떠나 바이올린을 공부할 수 있었고 교수가 된 건 그야말로 기적이었다”며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다.

또 차 교수는 “메디치 프로젝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발굴해 돕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면2세를 위한이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7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영적 리더를 배출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olympicchurch.org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nghyun.org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church.org

“믿기 전 삶도 사용하셔서... 성경 바람잡이 되고파”

‘성경만 안 읽다, 성경만 읽게 된’ 방송인 조혜련 집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애써 진리를 찾아 해냈지만, 공허했다. 그랬던 그녀가 드디어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성경을 통해서다.

‘성경만 안 읽다, 성경만 읽는 사람’,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요즘 성경에 빠져 산다. 매일 성경을 5장씩 읽고 녹음해서 공유한다. 지난 9월 27일에는 찬송가 앨범을 발표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조 집사가 발표한 앨범이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말씀이 함께하는 찬송’이라는 점이다. 조 씨는 찬송 전주와 간주 부분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낭독해 담았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말씀’을 퍼서 읽기를 바라는, ‘성경 바람잡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다. 지난 9월 28일, ‘유쾌 상쾌 통쾌’한 방송 모습 그대로 내내 은혜를 전한 조 집사와의 인터뷰.

-다른 종교를 믿고 계셨지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이 고민했어요. 삶을 어떻게 이뤄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낮은 단계였지만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 의, 자기계발에 대해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남편을 가르쳤어요. ‘모든 종교와 진리는 하나야, 기독교도 좋지만 내게는 강요하지 말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어떤 여성분이 세례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조혜련도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남편이 중보기도에 들어갔다고 해요.

물론 그 전부터 개그우먼 이성미 언니는 오랫동안 저를 위해 새벽기도를 해 오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내 이름 빼 달라’고 했었지요(웃음). 아 참, 이성미 씨가 예전에 살던 캐나다 밴쿠버에 잠시 같이 있었는데, 제가 쓴 편지를 찾았대요. ‘언니, 새벽기도 때 내 이름 빼 주세요’라고 써 있었던 편지요. 하하하. 그래서 다음에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남편의 존댓말 사건이 교회에 나간 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두 살이 어린데 반말을 하길래,

존댓말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한 번 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교회를 가게 됐어요. 다들 찬송을 부르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는 가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힘들고 피폐한 상태였어요. 제 어려움과 고초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하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44년간 살면서, 많은 책을 읽고 종교를 접했지만 ‘성경만’ 안 읽었던 거예요. 저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원숭이로부터 인류가 진화했다고 생각했고, 불교의 범화경도 읽고 윤회도 믿었었어요.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을 한 번 읽어보리라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건 이런 거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상상 속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면 ‘날 구원하신 분’이라는 간단한 것 외에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다 돌아온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 그리고 넌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보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잡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구니? 판단자 아니니? 빼어 같은. 그러니 진짜 성경이 재밌다고 여기저기 다니며 이야기해서 성경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라’ 그런 마음이신 듯 해요.

-그래서 앨범까지 발표하셨네요.

이 앨범은 ‘성경 찬송집’이에요. 다 ‘자비량’으로 만든 거예요. 요새 누가 CD를 듣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송술나무라는 하나님의 연주시를 붙여 주셨고,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습관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전주와 간주마다 성경 구절을 낭독했어요.

찾아보니 찬송가가 1800년대에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각 찬송가마다 옆에 보면 뿌리가 된 성경 구



이제 ‘성경’ 없이 살 수 없는 조혜련 집사

절이 나오잖아요.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그 관련 성구들을 낭독했어요. 예를 들어 ‘주 날게 밀 내가 편안히 쉬네(419장)’는 시편 말씀(17:8)인데, 적들이 압제하는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다윗의 시예요. 이 찬송이 너무 재미있는 게, 이런 내용인데 정작 멜로디는 경쾌한 거예요. 최근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앨범 제작 과정은 어땠나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 줄게요. 처음엔 노래를 제 스타일로 했어요. ‘아나까나’ 하듯이 음을 막 꺾은 거예요. 그러다 ‘예수 나를 위하여’를 불렀어요. 열한 곡이었어요. 부르는데, 송술 선생님이 마이크를 켜셨어요. ‘변화음 주지 마세요.’ 저는 ‘감정 넣은 건데요’라고 했어요. ‘악보를 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3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직접 이야기는 못하고 혼자 투덜댔어요. 선생님 들으라고요. ‘하나님, 제가 CCM 가수도 아니고 못하겠다’고요.

결국 다시 하라는 대로 했지요. ‘그냥 해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하면서 끝까지 변화음 없이 갔는데, 송술 선생님이 마지막에 우시더라고요. 아, 이 이야기 하면 지금도 막 소름 돌아요(웃음).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변화음’을 못 넣었지요. 한 곡 녹음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앞에 녹음했던 10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라고요. 잠이 안 왔어요. 주님께서 노

래 가운데서도 ‘너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거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전 10곡도 다시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것이지요.

“요즘에 좋아진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걸 깨끗하게 녹음했어요(웃음). 이 찬송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곧 순교할 것을 감지하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A.D. 64년 로마 화재 이후 죽거든요.

결국 제 간증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바람잡이’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어요.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으시겠지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혼도 했고 일본에서 때국노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활활 태워서 재료로 쓰신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한 전도사님을 통해 ‘레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성소가 있

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4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사라진 거예요.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갈테니 이제 우리는 구분이 없고, 오직 내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하신 걸 알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깊이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제 의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 몸에 담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좋았어요.

얼마 전에는 오는 10월에 한 방송사 주관으로 부산에서 성경암송대회가 있는데, 홍보대사를 해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지만, 재미있게 ‘바람을 잡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순 없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순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오만하고 자만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에게도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의 명을 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제목입니다.

이대웅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한 의사 사랑
 한 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채플과 엠버밍시설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장 의사

리스장의사 장례적금

장례는 현실입니다. 이제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으로 부담을 덜어 내세요. 장례적금은 장례보험과 다르게 양도양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도 강제해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입 또는 디파짓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약속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장례적금은 아무 조건없이 누구든지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패키지		화장패키지	
A \$2,270 SAVE (\$10,070) (\$7,800)	실제금액	A \$2,070 SAVE (\$8,070) (\$6,000)	실제금액
B \$2,820 SAVE (\$8,820) (\$6,000)	실제금액	B \$2,770 SAVE (\$7,570) (\$4,800)	실제금액
C \$2,170 SAVE (\$6,970) (\$4,800)	실제금액	C \$3,070 SAVE (\$6,670) (\$3,600)	실제금액
D \$1,655 SAVE (\$4,655) (\$3,000)	실제금액	D \$1,365 SAVE (\$2,565) (\$1,200)	실제금액

*회저 23%에서 최고 \$537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이제 부담없이 마음놓고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을 통해서 \$3,000이나 절약하고 덕분에 아이들도 한결 마음에 부담이 덜 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리스장의사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Lee's Mortuary FD1164 리스장의사



세례요한 탄생교회와 만남교회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6)

광야의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무대였던 쉘렐라 평지를 둘러 보자. 이스라엘에서 쉘렐라(Shephelah)는 평지라는 히브리어다. 동으로는 유대산지와 만나고 서로는 블레셋 평야(지중해 해안)와 만나는 중간지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중앙 산맥과 블레셋의 해안 평야들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지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신1:7, 수9:1, 10:40, 11:2, 12:8, 사1:9, 대하28:18, 숙7:7)

쉘렐라는 유대에게 할당된 영토에 있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수 15:33-44) 이곳은 고도가 약 450미터에 달하였지만, 훨씬 더 높은 중앙 산맥에 비할 때 '저지대'였다. 쉘렐라는 비옥한 곳이며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다. 고대에 이 지역은 돌무화과나무와 올리브 과수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는 양 떼와 소떼를 위한 목초지도 있었다.(왕상10:27, 대상 27:28, 대하1:15, 9:27, 26:10)

쉘렐라의 규모

쉘렐라는 넓이 16km, 길이 65km 정도 되며, 해발은 100m-400m이다. 유대 산지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해안 평야지대에 있었던 블레셋 민족과 완충 지역이었다. 주요 도시로는 아얄론(수10:10-15), 벤호른(수10:10-11), 엠마오(눅24:13-35), 게셀(수10:37), 벤세메스(삼상 6:12), 딘나(삿14:1-2), 아세가(삼상 17:1), 소고(수15:35), 아들람(삼상 22:1), 마레사(대상4:21), 라기스(왕하18:7) 등이 있다. 쉘렐라 지역으로 나아가는 관문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에서 소렉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에 만남교회가 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구세주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150km 이상 남쪽으로 내려와 유대산중에 이른다. 이곳이 바로 '포도밭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에인 케렘(Ein Kerem)이다. 에인은 샘을 뜻하고 케렘은 포도밭을 뜻한다.

이곳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던 곳이고, 마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므로 평소 사가랴의 집안과 아는 사이였던 것 같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게 되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충만하여 큰소리로 말하기를 "여자 중 네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내주의 모친이 나온다고 말하였다.(눅 1:39-45) 마리아의 태중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이 엘리사벳에 의해 확인되었고 마리아는 주를 찬양하며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오늘날 예루살렘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내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한적한 시골 같은 모습을 보이는 곳이 에인 케렘이다. 시대가 흐르고 흘러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아랍인 거주 지역으로, 다시 유대

인 거주 지역이 되어 시골 정취를 맛보고 싶은 예술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예술인촌이 되었다.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오다 버스길 옆 주차장에 버스가 서게 되면 좌측으로는 세례요한의 탄생교회가 보인다. 걸어서 2분 정도 올라가면 교회 경내로 들어간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의 탄생지

이 교회 정원 벽에 부착된 누가복음 1:57-80은 세례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구절이다. 요한 역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자. 약간 어두컴컴한 교회 내부가 눈에 들어온다. 교회 벽을 타일로 장식한 것도 특이하다. 약간은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교회당에서 잠

깐 묵상 후 왼쪽 구석진 곳으로 가 보자. 지하로 내려가는 아치가 나온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동굴같은 곳에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의 한가운데 세례요한이 탄생했다는 표시별이 눈에 들어온다. 라틴어로 세례요한이 여기서 출생하였음을 알린다. 지금은 동굴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집이었을 이곳에서 고요히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그의 생애(마3:1-17)를 기억해 보는 것도 은혜가 된다. 언젠가 이곳에 들렀을 때,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 기타를 치며 성가를 부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음률에 반해 버린 적이 있다.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는 한국말 성구벽도 이 교회의 정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남의 기쁨-에인 케렘

큰 도로를 지나 서쪽 언덕 쪽으로 가다 보면 마리아가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사용하였다는 우물을 만난다. 이 우물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은 지금도 끊임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 어디에 포도밭이 있나 바라보며 언덕 위로 계단을 타

고 올라가 보자.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땀을 식혀줄 즈음에 우리는 만남교회를 만난다.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우측의 동상을 보라. 배가 불룩 나온 여인이 엘리사벳이다. 이미 요한을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정원 벽을 장식하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눅1:46-56) 중 한국말로 된 것은 좌측 끝 쪽에 있다. 교회는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1층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의 장소이다.

옛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여 교회를 꾸민 흔적이 보인다. 벽화에는 어린이들을 잡아 죽이는 헤롯 대왕의 병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여인들이 힘을 얻는다. 교회의 벽화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자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라, 리브가, 라헬, 에스더, 한나, 라합, 드보라 등 한 시대를 장식하였던 위대한 여인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만남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계속>



에인 케렘에 있는 마리아의 우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동상

“할렐루야!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3:15)

나눔과 섬김의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및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교회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축복된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주일
오후 3시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 TEL.213-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이렇게 준비해야 교회가 산다

권혁기 | 콤팩 | 327쪽

하나님 말씀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예언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저자는 성경의 예언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살피면서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

E. M. 바운즈 | 오태웅 역 | 베다니 | 211쪽

<기도의 능력>으로 유명한 저자가 '기도의 실제'를 가르치는 책이다. 평소 매일 3시간씩 새벽에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했고, 설교한 대로 목회와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했던 저자의 기도생활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백성호 | 아라테 | 352쪽

한 일간지 종교전문기자로서 칼럼을 통해 일상의 구도자로서 내면 탐색을 이어온 저자의 이스라엘 방문기. 신자로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 숨겨진 깨달음을 구하는 탐구자적 자세로 나사렛 골목과 갈릴리 호숫가를 걷는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으로 예수의 말씀을 파고들자, 숨어 있던 의미들이 벽을 깨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성 훈련의 네 가지 길

조연형 | 흥성사 | 112쪽

2천 년 기독교 역사 속 영성 훈련의 주요 네 가지 길을 정리했다. 저자는 한국교회 영성을 위해 미국에서 10년간 영성신학을 갖고 뒤었다. 거룩한 독서(레시오 디비나)와 짧은 경구를 반복하는 예수기도, 시간을 정해 드리는 성무일도, 영성일기 등 네 가지. 저자에 따르면 영성훈련은 '나'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 타인'이라는 객체에 초점을 둔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그림 동화'에 대한 선입관 접고 보아야 할 책

필자는 오래전 유치부나 초등부를 맡았던 적이 있어, 어린이용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을 한동안 두루 찾아볼 때가 있었다. 생각보다는 그리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하곤 했다. 그림이나 디자인은 괜찮아 보이지만 정작 성경을 동화적으로만 만들지, 성경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책들도 적지 않아, 성도들이 책을 권해달라고 할 때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IVP에서 최근 '그림 동화'가 나왔다. 종종 IVP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극히 드물었고, 기존 책을 어린이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했다. 그러다 '루터와 이발사'란 그림동

화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기대감이 들지 않았다. 그림도 고풍스러웠고 게다가 아이들 책에 루터를 등장시키다니, 게다가 저자가 C. S. 루이스도 아닌 R. C. 스프로울이라니, 이걸 재미없고 딱딱함이 합일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연히 내 속에 들어온 이 책은 이런 상황 때문에 흥미를 끌었고, 금세 읽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손을 내 댈게 되었다.

편견과 선입관은 깨어지라고는 듯싶다. 저자 소개란에서 R. C. 스프로울이 이미 어린이를 위한 책을 여러 권 썼다는 것을 보고, 평소 저자의 책들을 생각하면 다른 모습



루터와 이발사
 R.C. 스프로울 | 흥성사 역
 IVP | 40쪽

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그림 동화는 얇고 내용도 많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 아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들려주는 루터와 이발사에 관계된 이야기는, 읽으면서 아이들에게도 입부의 반전의 맛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발사에게 일종의 책임은 재미를 느끼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말고 동화를 본 후에 이 글을 읽으시길-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엔 일종의 관습적이고 고리타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활용방법은 선입관을 깨뜨린다. 단순히 주문이나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기도에 적용하고 담아내도록 돕는다.

저자 R. C. 스프로울은 그의 다른 여러 책에서 신앙의 중심주제와 교리들을 단순히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을 넘어 실천적이고 영성의 도전을 주곤 했다. 그는 이 그림 동화에서, 비록 책을 읽을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교리와 복음을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영성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아주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교(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역대하 7:14



종교개혁 500주년기념대회 & 2017 다민족연합기도대회

BACK TO THE BIBLE 회개, 성결, 선교

일시: 2017년 10월 29일(주일)
오후 5:00-8:00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 714.446.6200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500년전 마틴루터가 당시 성경을 떠난 교회를 향해 개혁의 봉화를 들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평신도들 손에 들려줌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을 전유럽에 번지게 했습니다.

“BACK TO THE BIBLE”을 주제로 성경읽기 운동과 회개와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다시한번 강력한 대 부흥을 체험하고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손잡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영광된 은혜의 자리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대회고문: 김영길, 김춘근, 박희민, 송정명, 이정근, 한기형

대표대회장: 한기홍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승희, 고현중, 권혁민, 김경진, 김광수, 김기동, 김기섭, 김인식, 김태형, 김한요, 노창수, 림학춘, 민경엽, 민승기, 민종기, 박성규, 박성근, 박신철, 박용덕, 박은성, 신승훈, 안동주, 엄규서, 엄영민, 윤대혁, 이서, 정영희, 지용덕, 진유철, 최홍주

준비위원장: 강순영

공동준비위원장: 이호우, 윤목

사무총장: 김경일

지역준비위원장: LA: 김영구/OC: 김익현/동부: 김신일/인랜드: 강문수/중부: 최국현/샌퍼난도밸리: 문일명
사우스베이: 안병권/샌디에고: 정성오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남가주전지역교회협의회/목사회/여성목사회/장로협의회/평신도연합회, 미주성시화운동, CMF, 미스바기도운동, SOON Movement, HYM, JAMA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찬투데이, 기독일보, 국민일보, CGNTV, CTS, CHTV18.7,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비전복음방송

연락처:준비위원장: 310) 995-3936, 사무총장: 213) 507-3875

